노동 포커스

2010년 임단협의 전망과 과제

이 장 원*

2010년 임단협만큼 근래에 불확실성이 강한 경우도 없었을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활동과 연동되어 한편으로는 올해 노사관계의 중심축이 임단협이 아니라 제도개선 활동으로 전이된 측면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장 노사관계의 치열한 각축양상이 임단협을 통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어느 해보다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6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올해 임단협은 정치적 이슈와 결합되어 자칫 상반기 임단협 진행과정은 뜨겁지만 사업장 단위에서의 결실은 쉽게 얻지 못하고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노총은 2월부터 노조법 개정 관련 특별단체교섭요구(이미 작년에 상당수 사업장이 법개정 후 특별단협을 갖기로 합의)를 개시하였으며, 4월에 쟁의준비, 5월 이후 6월까지 파업동력 결집의 수순을 밟을 전망이며, 한국노총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등 전임자 제도개선과정에서의 실리확보를 위한 정치적, 합리적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 경총은 상반기 중 예상되는 노조의 전임자 관련 단협개정 요구에 대해 기업들의 개별적 교섭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활동결과가 나오는 5월 이후부터 본격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임금인상률 및 임단협의 구체적인 이슈에서도 노사간 차이가 극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협약임금인상률은 1.7%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100인 이상 교섭타결사업장 5,168개 조사결과)였고 공공부문은 0%였다.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5% 내외로 나타나고 있어 노조의 임금회복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들의 구조조정 진행,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 및 중소기업들의 경기회복 부진으로 인해 대폭적인 임금인상이 가능한 기업은 예상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갈등가능성이 많다.

이에 더해 최근 취약해진 산별교섭의 틀을 다시 복구하려는 노조와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 노사일부의 산별중앙교섭에 대한 거부감 확산으로 인한 갈등이 더 확산될 전망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cwlee@kli.re.kr).

이런 불안정성과 불투명성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임단협의 발전방향에 대해 노사정의 중장기적 인식공유와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해 촉발된 점은 있지만 2009년 노사화합선언은 6,394건으로 직전년 2,689건에 비해 대폭 증가했고, 근로손실일수는 직전년 대비 22% 감소했다. 노사간 협력분위기가 일선 노사관계에서 확산된 결실이 있었다. 따라서 올해 예상되는 안정적 임단협 진행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같은 노사협력 분위기를 확산하면서 전임자제도 개선을 통한 합리적 노동운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2010년 상반기는 역사적인 노조법 개정에 따른 갈등과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장의 분규에 대비하여 사전적인 임단협 지원이 필요하다. 노사출신 교섭협력관 등을 취약사업장 교섭에 적극 활용하여 전임자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중심으로 현장 임단협이 진행되도록 견인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들의 방만한 임금구조 및 인사경영권의 왜곡과 관련된 단체협약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서 공공부문의 임단협에 대비해서 실질적인 연봉제 정착 및 직무 및 성과중심 인사제도 실현에 대해 노사정간 공감대를 넓힐 필요가 있다.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관성적인 공공부문 임단협은 쉽게 담합에 빠져들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기세싸움으로 확산되기에 사전에 충분히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교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 두 가지의 인상 깊은 노조활동 사례가 보도되었다. 하나는 현대차 노조지부장의 해외공장증설 필요성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었고, 다른 하나는 LG전자 노조의 사회적 책임 이행선언이었다.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적 사업장들에서 나타난 이런 발전적인 노조의 인식은 분명 중요한 사건이다. 임단협의 진행과정에서 사측은 물론이고 이를 지원하는 정부도 이에 호응해서 노사관계의 현실인식과 책임확대를 통한 질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컨대 열악한 협력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도요타의 품질위기 원인을 같이 탐구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KLI